

## 군산대학교 편입학 합격 후기

편입 후 1년을 지나오면서..

해양생명의학과 김○○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편입한 해양생명의학과 김○○입니다.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으시는(어부) 아버지 일을 종종 도우러 갔는데 돕다 보니 물고기를 좋아하던 저로서 더 흥미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어영부영 대학교 다니느니 호기심과 흥미가 있는 이 분야를 학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군산대, 부경대, 선문대, 전남대, 제주대의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작년도 편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선발기준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지 틀이 잡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다니면서 학점관리를 하고 혹시 몰라 수업을 1년 동안 배워오면서 마치게 되고 편입생 모집기간에 신청을 하여 면접을 통해 학교에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을 때 군대도 다녀오고 해서 친구들이 있을까 부터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까지 걱정이 너무 많았고 문과였던 저는 기초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개강을 하게 되고 수업과 적응에 대한 어려운 점이 나뉘었지만 주위에 있던 후배들과 같이 편입한 편입생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편입을 해서 그런지 동생들이랑 수업을 같이 듣게 되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 저도 마음이 편해졌을 때쯤 후배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고 같이 밥을 먹게 되고 술을 먹으면서 그 중에서도 친해진 한명 두 명과 어울리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니 주위에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 지금은 형 누나 동생하면서 장난도 치고 고민도 털어놓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입학하기 전의 걱정들을 왜 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과 조교님이 너무 친절하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강을 하고 수업은 어떤 것부터 들어야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에 대한 도움을 주어서 지금은 혼자서 검색하며 공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편입해서 새로운 교수님들과 수업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게 있어서 따로 찾아가면 너무 반겨주면서 들어주시고 고민과 진로에 대해 여쭙보면 너무 자상하고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또한 실험과 사진, 자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수산분야에 전문 지식도 없고 검색을 통해 나오지 않는 내용이 많다보니 여름방학에 교수님들이 추천해주신 현장실습도 다녀왔는데 너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와 닿는 경험이 되었고 학과를 졸업한 선배님들에게 연락을 통해 현장실습업체를 연결해주셨고 소개를 통해 현장실습 다녀온 수산질병관리원은 선배님들이 너무 좋고 잘 챙겨주셔서 4학년 2학기에도 가기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의 어두가 없고 글쓰기가 부족하여 말로 설명은 다 못하였지만 학교를 다니는 지금 꿈이 생기고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학년 또는 학기를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하여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학과 교수님 형님, 누나, 동생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